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본 문 시편 108장 1-7절, 시편 150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4-10절

참고성구 누가복음 2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선생도 모두들 기도해 주어서 영육 건강하게 하나님과 주님이 맡겨 주신 일들을 하며, 처한 환경에서 정말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후에 만나면 너와 나를 위해 정말 눈물이 나도록 기도해 주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나도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도해 주었으니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불의가 아닌 이상, 꼭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해 주고, 학생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서 재미있게 일하고, 집에서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각자에게 나누어 준 분복을 행하며 열심히 살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세상에서 사는데도 희망을 일으켜 보람 있게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불만 없이 감사함으로 행하며 사는데, 왜 넓은 세상에 살면서도 보람 있고 행복하게 주와 동행하며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 괴로운 맘으로 살지요? 주님 모시고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환경 타지 말고, 제재 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시계처럼 살아야 합니다. 시계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변함없이 갑니다. 사람은 환경을 너무 잘 탑니다. 환경 의식 말고, 먹는 것에 환경 타지 말고, 옷

입는 것에 환경 타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 타지 말고, 담대히 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냐고요? 예수님처럼, 선생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매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리 먹는 것이 중하냐. 뭐 그리 입는 것이 중하냐. 뭐 그리 환경이 중하냐. 뭐 그리 집이 중하냐.”

이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뭐가 그리 중하지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 때는 나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과 너를 보고 말한다.”

또 물었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먹고 입고 사는 환경이 중하지, 뭐가 그리 중합니까?”

이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일 중하다. 그리하면 육신도 잘 되고 영도 잘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물으면 이같이 대답하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집에 살아도 정신이 썩어서 행실도, 영도 썩은 삶을 살면 인생에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주를 믿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이상적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살게 한 존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살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맘대로 세상을 중심하여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

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가서 살게 되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제 맘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인생 손해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일생 동안 하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공적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일과 행실대로 받아 그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많이, 미련 없이 하늘 위해 자기 인생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과거의 삶을 후회하듯, 나이가 든 후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지 못한 자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생각해 봐요. 10대에 못한 것, 20대에 후회 안 해 보았어요? 20대에 못한 것, 30대에 후회 안 해 보았어요? 30대에 못한 것, 40대에 후회 안 해 보았어요? 40대에 못한 것, 50대에 후회 안 해 보았어요? 후회 안 해 본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도 육이 후회하지 않고, 죽은 후에도 영이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벌써 2008년 10월이 옵니다. 10월은 주님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갓은 핏박과 모진 환난이 몰아치고,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해 대며 악평을 해도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악한 자들에게 잡히기 전까지 외치셨습니다. 절대 의지를 꺾지 않고, 낙심치도 않고, 양 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싸우지도 않고,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포악한 자, 악평자, 누명을 씌우는 자들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만민을 위해 대신 죽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억울하여 어디 가서 화풀이도 못 하고, 그 대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을 풀었습니다. 결국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지구촌을 기독교 복음으로 퍼 나가게 했습니다.

10월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입니다. 예술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생명들을 주님처럼 전도하며 한 명씩 바쳐 생명의 영광을 돌리는 달

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으니 10월은 전문 예술인뿐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선생도 전도하니 모두 전도하기 바랍니다. 눈을 한 달 동안 감고 다녀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 명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들을 전도하지 않았지?’ 하며 이 세상에서나 죽은 후에 후회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기도한 것과 소원한 것을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10월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가까이 대하며 그의 손을 잡고 하나 되는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양팔 벌려 500명이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을 만들어 춤추고 노래하고 나팔 불며 다윗처럼 영광 돌리며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옛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춤추고 노래하고 풍악을 울리듯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약속하였기에 월명동을 개발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명동에 오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또한 자기 환경의 위치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 걱정 안 되도록 모두 자기 분복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분복이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사명과 복입니다. 지체와 같이 받은 발로서 사명을 행하여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손은 손으로서 사명을 행하여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발이 손이 되려 할 필요 없이 발로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해야 기쁘고, 그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사명과 복을 탐낼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각 지체들은 자기 지체로 만족하며 평생 사는 것입니다.

머리는 각 지체를 개성으로 모두 사랑하고 좋아하며 관리해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머리가 되시니 각 지체들을 그같이 대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관리해 주십니다. 선생도 여러분 모두를 각각의 지체로 보고 챙기니, 다른 지체를 부러워 말고 자기 사명과 존재에 만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각 지체들인 섭리인들을 각각 챙기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선생에게 손해가 갑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지체 하나 병들면 결국 자기가 손해이지요? 섭리 전체는 모두 자기 지체입니다. 관리 안 하는 것 같아도 지체라면 어디에나 피가 돌고, 영양 공급이 됩니다. 운동하면 온몸에 영향을 미쳐 건강하게 됩니다. 손이 안 가는 위, 폐, 대장, 소장, 신장, 간 모두 머리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들도 기도로써 모두 관리합니다.

“나는 선생과 안 친하다. 줄이 없다. 백이 없다.” 하지 마요. 고무줄 없고 빨랫줄 없어도 모두 한 지체라서 피 공급이 되고 영양 공급이 되듯이, 섭리인 모두에게 말씀 공급이 되고 은혜와 기도 공급이 되니 걱정 말고 열심히 해요. 믿습니까?

“선생과 친하지 않다. 줄이 없다.” 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요. 꿈에 보여 달라고 해 보세요. 여러분은 안 친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친하게 여기고 좋아하니 걱정 마요. 하나님과 친한 것이 문제이고, 예수님과 친한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면 애인같이 친한 자입니다.

지체는 옆 지체로 인하여 편하면 안 됩니다. 한 다리가 편하기 위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윗다리는 편하지만 밑에 눌린 다리는 저리고 편치 않습니다. 머리가 편하기 위해 팔베개하고 자 보세요. 얼마 안 가서 팔이 저려 못 견딥니다. 할 수 없이 계속 못 합니다. 머리만 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편하게 하고 다른 지체가 불편하면 결국 자기도 불편하여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이 ‘형제’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말입니다. 알겠어요?

지체는 각각 자기 수고로 인하여 편해야 되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 다른 지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자기 편하기 위해 밑에 사람을 삶의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자기 편하려면 자기가 편하게 해야 됩니다. 팔이 편하려면 팔운동 하여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우측 팔이 편하려고 좌측 팔보고 안마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리가 편하려 팔에게 주물러 달라고 할 것 없습니다. 자기가 운동해야 됩니다. 교역자도 안마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운동해요. 자기가 자기를 편하게 하며 살고, 폐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10월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라. 그러면 땅에 평화가 온다. 영광 돌릴 때는 생명의 영광도 돌려라. 전도해야 한다.”

10년 만에 왔으니 얼마나 전도했는지 보겠어요. 각자 공적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은 ‘기도하는 달’입니다. ‘화목하는 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과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섭리 전체는 누가 악평하든지 수군거리면 교단에 즉시 보고하고, 목사님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마는 자는 악평하고 수군거리는 자들과 똑같은 자입니다. 자기는 악평을 안 믿고 믿음이 굳건해서 같이 투덜대고 악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말지만, 악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결국 끌고 나갑니다.

앞으로 그같이 하는 자들은 계획적으로 섭리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평생 안 받을 것입니다. 장년부로도 안 받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썩은 음식과 과일은 다시 만들어 먹지 못합니다.

섭리 전체가 섭리를 수호하는 사명자들이 되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섭리사가 평안해집니다. 모두 섭리사를 잘 지켜야 됩니다.

10월의 목표를 달성하고, 하늘의 방향에 따라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서로 화답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